어획량 감소에… 제철 병어 '귀한 몸' 됐다

수협 광주공판장 , 지난해 5~6월 병어량 경매 31t…2년 새 42%↓
병어 상자당 최대 40만원…6월 6일까지 '어식백세 병어 특판 행사'

지난해 지역 병어 거래량이 3분의 1이나 감소한 가운데 올해도 5~6월 제철인 병어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병어 시세는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29일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병어 경매 물량은 31.2t으로, 전년보다 36.1%(-17.6t) 감소했다.

초여름 별미로 꼽히는 병어는 최근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가운데 남획이 부쩍 잦아지면서 해마다 수확량이 줄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온이 불규칙해진 것도 병어가 '귀하신 몸'에 등극하는 데 일조했다.

수협 광주공판장에서 5~6월 병어 경매 물량은 지난 2019년 53.3t, 2020년 48.7t, 지난해 31.2t 등으로 줄고 있다. 최근 2년 새 41.5% 급감한 것이다.

경매 금액도 10억6200만원(2019년)→10억4000만원(2020년)→8억7400만원(2021년) 등으로 감소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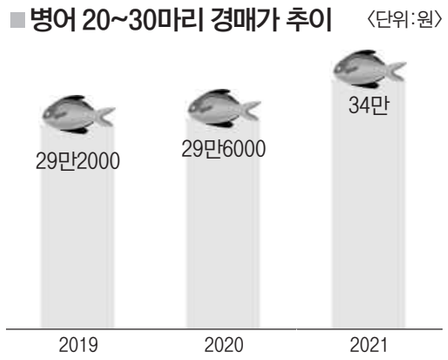
이같은 공급량 감소 때문에 병어 시세는 계속 오르고 있다.

20~30마리 가량 들어가는 한 상자당 병어 경매 금액은 지난해 34만원으로, 전년보다 14.9%(4만4000원) 상승했다.

한 상자당 병어 시세는 2019년 29만2000원, 2020년 29만6000원, 2021년 34만원 등으로 오르고 있다.

올해 이달 말 기준 한 상자당 병어 시세는 32만원에서 높게는 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경골어류 병어목 병어과에 속하는 병어는 필수아미노산을 고류 함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곡류만을 섭취했을 때 부족하기 쉬운 라이신과 트레오닌이 많아 단백질 보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몸이 넓고 평평하며 등쪽이 청색을 띠며 튀어나왔다. 아래턱이 튀어나오고 눈은 동그랗고 작다.

병어 주산지로는 신안 비금도, 임자도, 영광 앞바다가 유명하다.

고소한 맛에 병어를 회로 먹거나 자작자작 끓여 병어찜을 해먹는다. 병어는 살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 회를 떠서 먹는 식도락가가 많다. 병어회는 깨끗이 손질해 냉동 보관하면 일년 내내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다. 구이, 조림, 찜, 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조리해 먹을 수 있다.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서구 매월동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사장)은 오는 6월6일까지 12일 동안 '어식백세 제철수산물 병어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

수협 광주공판장은 지난 2014년부터 수산물과 함께 건강을 유지하자는 '어식백세'(漁食百歲) 캠페인을 열어 제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는 호남 특산물인 병어 성어기를 맞아 산지에서 바로 온 횟감용 병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 속에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수협 광주공판장은 행사 기간 다양한 규격의 병어를 구비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농·축협 조합장들 쌀 15만t 추가 격리 촉구

전남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시·군지부장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농가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2022년 전남농협 조합장 워크숍'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 농·축협 조합장과 시·군지부장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난해 우수 사업추진 농·축협 소개와 올해 사업추진 결의, 현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국제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식량안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백형일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장이 쌀값 주요 동향을 설명하고, 조합장들 의견을 듣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과잉 생산된 쌀 15만t을 정부가 추가 격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전남 관내 144개 농·축협이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다음달 2일까지 광주신세계 1층에서 열리는 '전남도 농·수특산물전'을 찾은 고객들이 10개 시·군 특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전남 농·수특산물 기획전

6월2일까지 진행

전남 농·수특산물 판로를 넓히기 위한 광주신세계 기획전이 올해도 열린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6월2일까지 본관 1층 행사장에서 전남도 농·수특산물전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전에서는 10개 시·군이 선보이는 15종 우수 특산물을 만날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부터 이 행사를 열어 장성, 영암, 나주, 완도, 담양 등 전남 20여 시·군 우수 상품들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대구신세계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에도 상생장터를 열어 판로 확대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암 멜론(1개 8000원), 구례 표고버섯(㎏당 1만원), 해남 수미감자(1.5㎏당 1만원), 영광 굴비(20마리 2만5000원) 등이 광주 소비자를 만난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농협 '새참 꾸러미' 전달

광주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최근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새참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새참 꾸러미는 미숫가루와 음료수, 즉석식품 등 10가지로 구성됐다. 이 꾸러미는 광주농협 조합원 2300여 명에게 전달됐다.

한진섭 광주농협 조합장은 "농자재 구입비 인상,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 조합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베트남 수출상담 739만 달러 성과

코로나19 이후 최초 파견
K-뷰티 등 15개 기업 참여

전남도가 지난 26일까지 5일간 베트남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739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완화로 무격리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전남 수출기업의 대면 마케팅 수요를 충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농수산식품기업 11개사와 케이(K)뷰티 등 공산품 기업 4개사를 코로나 이후 전국 최초로 베트남에 파견해 수출상담을 했다.

그 결과 15개 참가기업 모두 33건, 739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했다. 지난 24일 호치민 수출상담회에서는 7건, 104만 달러, 25일 하노이 수출상담회에서는 26건, 635만 달러를 계약했다.

하노이 수출상담에서는 완도물산이 조미김 160만 달러, 골든힐이 농수산식품 115만 달러, 현농프레쉬가 신선농산물 100만 달러, 호인이 네일아트제품 60만 달러, 완도사랑이 전복가공식품 51만 달러, 완도맘이 미역 등 50만 달러, 맛나푸드가 조미김 등 23만 달러, 에스에프시가 계면활성제 20만 달러 계약을 했다. 또 한국시과학연구소가 콘택트렌즈 13만5000 달러,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이 유자차 10만 달러, 레오바이오가 혈당측정기 10만 달러, 호성이 아로니아분말 9만 달러, 바다손애가 미역줄기 등 6만2000 달러, 아라움이 오징어스낵 4만 달러, 위더스에프앤비가 양파즙 3만 달러를 계약했다.

호치민 수출상담에서는 에스에프시가 50만 달러, 호인이 40만 달러, 한국시과학연구소가 7만5000 달러, 맛나푸드가 4만 달러, 완도맘이 3만 달러 계약을 달성했다. 특히 러시아 수출길이 막힌 에스에프시와 맛나푸드는 이번 상담으로 각각 70만 달러, 27만 달러 상당의 수출성과를 올리는 등 대체시장 발굴에 적극 나섰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장개척단은 코로나 이후 민간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에 맞는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꾸렸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노지채소 3만4000t 비축…수급관리 확정

정부가 기상재해가 잇따르는 여름철을 앞두고 양파 2만t 등 주요 노지채소 3만4000t을 비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2022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주요 노지채소류 수급관리 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양파는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2만t을 비축한다. 정부 비축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현재 조생양파(더 일찍 성숙하는 종) 출하를 6월로 연기한다.

이외 ▲봄배추 6000t ▲봄무 2000t ▲마늘 6000t 등 비축이 결정됐다.

아울러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비중은 지난해 16%보다 4%포인트 많은 20%로 목표를 상향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